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受胎)를 알리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受胎)를 알리다

²⁶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²⁷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²⁸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²⁹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³⁰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³¹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³²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³³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³⁴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³⁵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

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³
⁶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³⁷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³⁸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눅1:26-38)

지난 몇 주 동안 사가랴와 아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속뜻으로 세례 요한은 자연적 차원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글자로 표현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직접 주신 신약의 말씀이나 또 스베덴보리를 통해 밝히신 말씀의 속뜻 같은 것이 바로 세례 요한으로 표상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세례 요한의 의미를 설명했더니, 언젠가 어떤 교우님께서 말씀의 속뜻이면 당연히 내적 진리인데 왜 그것을 자연적 진리라고 하느냐고 반론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受胎)를 알리다’

을 제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말씀의 속뜻이 내적인 의미, 즉 영적 의미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적 진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것이고, 그런 만큼 그것은 내적 진리를 받기 위한 자연적인 그릇일 뿐 내적 진리는 아니라는 것이 저의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내적 진리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될 수 없는 아주 깊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스베덴보리를 통해 밝히신 말씀의 속뜻이 내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곧 내적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아시려면 천국의 비밀 8443의 진리의 여섯 등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을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실까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삶으로 실천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사가랴에 대해 유대 나라 헤롯왕 때 제사장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유대 나라는 주님 당시의 유대교회처럼 종말에 가까운 교회의 상태를 나타내며, 헤롯왕은 거짓 진리가 교회를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왕은 진리, 또는 반대의 의미로 거짓 진리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마지막 때에는 왜 진정한 진리가 없고 거짓 진리만 있을까요? 교회 지도자들이 진리를 자기 마음대로 왜곡해 모두 거짓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지금 거짓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또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그가 비록 잘못된 교회 안에 있기는 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의 속뜻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거기서 나오는 선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가랴와 같은 사람 즉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교회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우리들이 겪었던 많은 일들이 떠오릅니다. 저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受胎)를 알리다’

주님께서 어떤 면을 보셨었는지 이렇게 귀한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제게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26절에서는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처녀 마리아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27**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가 찾아간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의 자손인 남자와 약혼한 사이였지만 처녀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처녀는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다윗의 자손 남자와 약혼했다는 것은 그가 진리를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진리와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다윗의 자손은 주님의 교회를 뜻하고, 남자는 진리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남자와 결혼했다는 것은 그의 안에 이미 주님의 교회를 통해 흘러 들어오는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찾아간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였습니다. 왜 천사는 갈릴리로 갔을까요? 예루살렘도 있고 다른 많은 곳이 있었을 텐데요? 말씀에서 갈릴리는 이방인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으로 간 이유는 주님이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에 오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교회가 타락해서 더이상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때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때 주님은 선한 이방인들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는 이방인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이란 표현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란 말은 상황에 따라서 좋은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 나쁜 의미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방인들은 주님과 이스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受胎)를 알리다’

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과 모든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쁜 의미의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주님 당시의 이방인들은 좋은 의미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는 오히려 교회가 주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로 표상되는 이방인들은 타락한 교회의 거짓 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며, 그러므로 참된 진리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에서는 그런 이방인들을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애타게 갈망했는지는 그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했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음식은 교회를 통해 내려오는 진리와 선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는 그러한 이방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말씀의 글자의 뜻으로 보면 마리아는 확실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속뜻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그를 통해서 새 교회를 세우시려고 천사를 보내십니다.

28절, 29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²⁹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임재하시는 순간입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깜짝 놀라면서 천사가 왜 내게 이런 인사를 하는가? 하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마리아가 놀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내면으로 흘러 들어오실 때 인간이 느끼는 공포와 전율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님에 의해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들만 느끼는 거룩한 공포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³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³¹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에는 누구나 그렇게 극도의 두려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受胎)를 알리다’

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나 주님의 제자 요한이 주님을 뵈었을 때, “**마치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들의 몸을 만지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지실 때, 그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히 자아를 내려놓을 때, 죽은 자 같이 될 때, 그때 주님께서 죽은 영혼을 살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무서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에는 속뜻이 있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은 주님을 순결하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진리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은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진리 안에 선 자체이신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진리가 아닙니다. 그 진

리 안에 선한 것, 선 자체이신 주님께서 그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진리의 측면에서 주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예수는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천사는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 안에 선 자체이신 주님께서 계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32절과 33절에서 천사가 계속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³²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³³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 하리라

천사는 태어날 아기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아기가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受胎)를 알리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태어날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녀를 통해 당신의 아들을 낳으신다는 의미 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의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의미는,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입으신 인간성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그것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할까요? 주님이 입으신 인성은 보통 인간들처럼 어머니로부터 받은 인성이 아니고 여호와로부터 받은 거룩한 인성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로부터 빌려 입은 물질의 옷이 곧 주님의 인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안에는 신성과 함께 거룩한 인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언제나 사람의 모습으로 인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람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인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의 또 하나의 뜻은 신적 진리라는 뜻입니다. 왜 신적 진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까요? 신적 진리는 마치 태양에서 빛이 나오는 것처럼, 사랑 자체이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적 진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인간의 아들처럼 아버지로부터 나온 아들이 아니구요,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빛이 곧 주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수사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주님이 입으신 인성과 신적 진리는 상응적으로 서로 같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입으신 인성이 바로 신적 진리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적 진리나 신적 인성이나 모두 사랑 자체이신 주님의 드러남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개념을 보다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적 인성이나 신적 진리는 모두 사랑 자체이신 주님이 걸치고 계신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성은 신적 진리인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受胎)를 알리다’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조금 전에 남자는 진리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하는 말은 그가 그만큼 주님 앞에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가 타락한 교회의 거짓 진리를 모른다는 것일 뿐 그에게 진정한 진리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마리아의 내면에는 사랑의 선과 믿음의 진리가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문에서는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 남자와 정혼한 사이”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마리아를 덮는다고 말씀합니다. 교우님들께서는 성령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성령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나오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자체이신 주님이 그곳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살아 움직입니다. 그 살아있는 능력의 진리가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거짓된 것을 몰아내시구요, 잘못된 생각이나 신념들을 교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인격을 바꿔주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마리아를 덮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실 바 거룩하신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마리아에게 오시는 신적 인성이신 주님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뜻입니다.

눅1:26-38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受胎)를 알리다’

다시 말하면 신적 인성이신 주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36절입니다.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서로 친족관계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에서 친족은 그냥 친척이라는 뜻이 아니구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이나 진리의 종류가 서로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즉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친족이란 말은 두 사람이 서로 비슷한 종류의 선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거룩한 아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는 선은 어떤 선입니까? 그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선입니다. 그냥 이웃에 대한 사랑이 아니구요, 주님에 대한 순결한 사랑에서 나온 선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서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믿음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엘리사벳이 늙도록 아이가 없었다는 사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늙도록 아이가 없다는 말은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엘리사벳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그가 알고 있는 진리가 거짓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짓 진리를 진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거짓 진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으로 표상되는 신앙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오랫동안 아기를 낳지 못했으며, 사가랴는 천사를 만난 후에 병어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엘리사벳 부부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이 지극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受胎)를 알리다’

말씀에는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믿음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36절에서는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기를 배었고 아기를 가진지 여섯 달이 되었다”고 말하고, 26절에서는 “천사가 가브리엘은 여섯째 달에 마리아를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섯 달”이란 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이란 수는 주님을 위한 수고와 싸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가랴 부부는 세례 요한으로 표상되는 새로운 말씀을 받은 다음에 비로소 내적 싸움을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거짓 진리를 버리고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기를 잉태하기 전부터 이미 내적 싸움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가 가브리엘이 여섯째 달에 마리아를 찾아왔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서로 달랐기 때문에 사가랴 부부에게는 자연적 차원의 말씀을 주시고, 마리아에게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나오는 내적 진리를 주신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내적 진리 자체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7절, 38절입니다.

³⁷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³⁸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스스로 주님의 여종이라고 말하고 주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마리아의 이런 모습은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로 오신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서로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은 각자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 오신다는 것 또한 아셨을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로 표상되는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타락한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을 믿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受胎)를 알리다’

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진리의 영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의 열매를 맺기도 어려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짓 진리가 방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가라는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전적으로 받아드리지 못하고 병어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병어리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뜻이구요, 그러므로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가라 부부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말씀이 세례 요한입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있는 거짓 진리를 몰아내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지 여섯 달 되었다”는 말은 그들이 새로운 말씀을 통해 거짓 진리를 몰아내는 싸움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에 비해 마리아는 속뜻으로 보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거짓 진리에 오염되어 있지 않은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갈 때가 여섯째 달이라고 말한 것은, 그가 이미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내적인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그런 마리아에게 오셔서 새 교회를 세우시려 하십니다. 그러면 사가라 부부에게 주시는 아들과 마리아에게 주시는 아들은 서로 어떻게 다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가라 부부에게 주신 아들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말씀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거짓 진리 안에 빠져 있는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새로운 말씀입니다. 그것에 비해 마리아에게 주시는 아들은 주님 자신이세요. 신적 진리 자체이신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들과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주님이 그 안에 살아계신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때 세상에서 오는 어떤 유혹이나 난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가 하는 것은 각자의 믿음에 따라 다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受胎)를 알리다’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께 죽은 자
처럼 자기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손을 잡
아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⁶⁸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⁶⁹우리를 위하여 구
원의 뿌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눅1:68-69)

아멘

2016-04-24(D1)

이순철 목사